

제 3 장

전환기의 '70년대

(1971 ~ 1979)

1. 주월영 교장 취임

손영경 교장이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영전하고 당시 경기여고 교장이던 주월영 교장이 1970년 11월 20일부로 본교에 취임했다.

주 교장은 태생지가 경상북도로서 일찍이 경북여고를 1923년에 졸업하고 도 일하여 여자고등학교의 가사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곧 이어 모교인 경북여고에서 교편을 잡았고 1937년 후반에서부터 1946년까지 경기여고의 교사로 근무했었고, 1948년은 숙명여대 교수로, 1949년에는 서울사대 가사과 강사로 지냈다. 1952년에서부터, 1954년대에 이르기까지는 대구 효성여대에서 교수로 있었다.

1957년 초에 문교부 편수관으로 들어갔으며, 1961년 9월 30일자로 영등포여고의 교장으로 취임하여 1965년 4월 6일까지 활약하다 1965년 4월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보 발령되자 불의의 재난으로 교사를 잃은 동교를 위해 복구 및 확장사업에 착수 7개월 미만에 전격적으로 5층 30개 교실의 초현대식 건물을 낙성시킨 박력있고 비범한 교장이니만큼 능력이 주목되었다.

2. 교육이념의 재정립

가. 10월유신과 교육

10월유신이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가 평화공존 및 화해체제로 급선회하는 등, 국제 정치의 격동기에 처하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기약하고 평화적 조국통일의 성취와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립 및 사회개혁을 위해 1972년 10월 17일을 기점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일대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을 기약하기 위한 민족 주체성의 확립과 발전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10월유신의 단행과 유신과업의 수행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해방 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유능한 생활인 또는 민주적 자유시민 양성을 목표로하는 서구식 민주주의 교육에 일대 반성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었다.

1972년 3월 24일 박 대통령은 교육자대회에서 국적있는 교육을 제창한 바 있고 10월유신 이념이 국민현장의 이념과 근본적으로 같음을 강조함(1972년 12월 5일 현장 선포 제4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치사)으로써 한국 교육은 일대 반성과 함께 민족중흥(유신과업과 국민현장 이념 구현)에 기여하는 새 한국인 육성이라는 구체적 교육 시책 방향이 제시되게 되었다.

나. 새마을 교육

새마을 교육의 시발

새마을 교육의 이념적 연원은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대표하는 향토학교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나 용어의 사용은 길지 않다.

1972년 3월 7일 국무위원, 지방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농공병진정책의 추진, 새마을 가꾸기 지원, 생산과 직결되는 산 교육의 실천 및 국난극복의 구국정신 고취 등을 골자로 한 특별 유시를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농업발전과 그 성패의 관건은 정부 정책보다는 스스로 잘 살아 보겠다는 농민들의 자조·자립·협동정신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새마을 정신이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로써 조국 건설을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으로 새마을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어 1972년 3월 24~25일에는 전국 교육자 8천 여명이 대구에 모여 국가안보와 새마을 운동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온 마을 운동을 계승한 새마을 교육을 통해서 조국의 번영과 민족중흥의 창엽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문교부 장학방침도 종래에는 향토학교 건설과 교육의 사회화(1972년도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장학방침 제16항)라고 했으나 1973년도부터는 새마을 교육의 심화('73년도 유신판업 수행을 위한 장학 기본 목표와 일반방침 중 장학 일반방침 3항)라 하여 새마을 교육을 강조하였다.

새마을 교육의 목적과 내용

새마을 교육의 초기 현상으로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노력 동원이나 봉사활동에 치중하고 학교를 개방한다든가 교사가 학교 수업을 희생해가며 부락을 찾아가서 문패를 달아주는 등 실로 학교 교육의 비정상적 상태를 일부 지역에서 연출한 예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개선이나 소득증대 등을 내무부나 농수산부가 주도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내의 충실한 교육활동을 통해 새마을 정신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새마을 정신을 강조하여 지도할 교육활동 분야를 들면 교육 과정의 향토화·학습지도·생활지도·봉사활동·성인교육·출산교육·학교개방·문화활동 등을 주도하였다.

다. 교육 목표 - 협동 봉사하는 새 한국 여성 육성

1973학년도 문교부에서는 국민교육 헌장의 이념, 10월유신의 정신, 새마을 정신을 기하여 국적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장학의 기본 목표와 일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장학의 기본 목표

국민교육 헌장의 이념의 생활화로, 교육의 체제를 개선하고 국적있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유신판업 수행에 앞장서는 새 한국인을 육성한다.

장학의 일반 방침

- ① 민족 주체성의 함양
- ② 유신 교육 체제의 확립

- ③ 새마을 교육의 심화
- ④ 보건 체육 교육의 강화
- ⑤ 과학 기술 교육의 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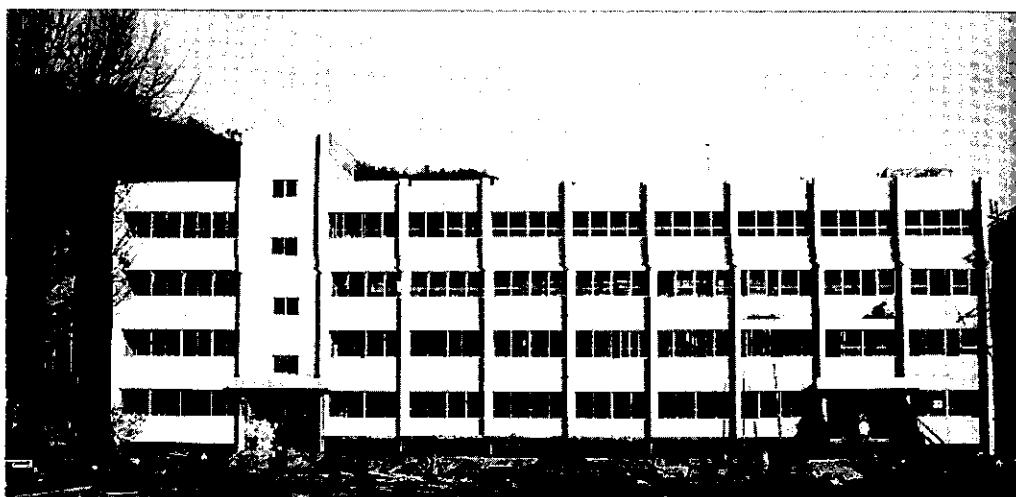
이 장학 방침은 그후 표현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아니하였다. 교육감 행정 지표는 “국민 교육현장 이념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풍토의 조성”을 위해 “존경받는 교사의 자세 확립, 교장 중심의 학교 운영, 교육행정의 합리화” 등을 내걸었다.

따라서 본교의 교육 목표도 “성실근면한 성품과 자주자립정신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으로 전진 발전하며 협동 봉사하는 새 한국 여성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본교의 이 교육 목표는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중점 사업만이 달라졌을 뿐이다.

3. 신본관 건축

가. 본관 신축



신축된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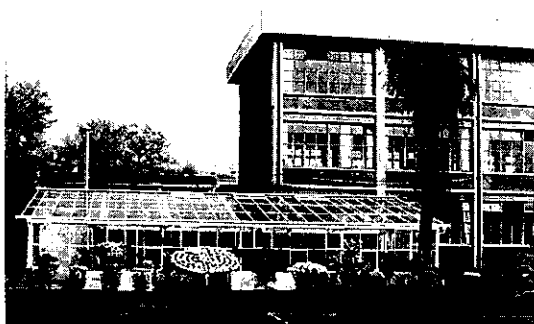
본관은 근 50년의 역사를 가진 건물로 노후하여 누수 누전으로 고민하던 중 주 교장의 열성으로 오랜 숙원이던 본관을 신축 준공하였다.

지하 1층, 지상 4층, 23개 교실로 되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콘크리트 현대식 건물이었다.

1972년 12월 2일 완공했는데 낙성식은 12월 5일에 민관식 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하점생 서울시 교육감, 미 8군사령관 부인, 국회의원 육성희 의원과 동창회원, 학부형,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막되었다. 특히 이 날을 위하여 그간 학생들이 배우고 익힌 특활작품들이 전시되어 그 솜씨는 많은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다.

나. 온실 신축

1972년 11월 4일에 35평의 온실을 신축하였다. 1년 내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성화단 외에 교문 입구·현관 앞·운동장 주변 등, 돌밭(황무지)에 학급별로 화단을 만들어 애교정신·단결심·노작하는 습관을 들이고 정서 교육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새롭게 단장된 온실

다. 정문을 옹기다

도로에 면한 정문을 안전지대로 옹기다 학교 서편을 흐르던 악취와 불결의 온상이던 개천을 복개하여 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위생을 도모, 밝고 아름다운 내 마을 가꾸기에 수도여고가 앞장섰다.

라. 민속관 설치

우리 민족의 전통과 잊혀져가는 문화재를 적극 보존하기 위하여 전교생과 전교직원이 합심하여 향토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더욱 80년대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대응식의 모형과 차트를 전시하게 되었다.

4. 우수교 표창

가. 총력 안보교육

1972년 1월 15일 졸업식 때에 자주국방과 총력 국가안보의 고취와 국방헌금을 위한 바자를 열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금액 기탁처 KBS).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각 학교 애국운동 전개는 물론 전국 여고생 전부가 바자를 열어 그 기금으로 국방헌금 운동을 일으켜 국가 안보의식 구현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나. 가정과 기능경진 대회 우승

평소 대용식, 혼식에 대한 부단한 연구 및 실습의 결과로 1972년 9월 서울시 가정과 기능 경진대회 조리부 및 전국가정과 실기경진대회 조리부에 출전한 본교 3학년 김종순이 1등상을 획득하였으며, 1973년 전국가정과 기능경진대회에 2학년 백설희가 역시 1등상을 획득하였다.

다. 저축 우수교

1972년 국민저축운동을 벌여 1학생 1통장 갖기와 학생들에게 장학적금 가입을 권장한 바 1인당 일만원 적금에 4,264구좌 월 994,293원씩 불입, 9월 25일 저축의 날에 저축 우수교교로 문교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라. 체육 보건교육 및 환경관리 우수교

이즈음은 수도여고의 황금시대로 상복이 많아 학교환경 조성과 체육보건교육 우수교로 1973년 12월 28일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마. 혼분식 계몽지도 우수교

혼분식 지도 및 계몽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상금 10만원 및 표창장을 받았다(74. 2).

바. 혼분식 장려 및 계몽

1973년 3월 23일 전주에서 있었던 전 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에 '80년대 식량자급자족을 위한 대용식의 모형을 차트 팜플렛과 같이 출품하였다. 1973년 10월 27일에 감자·고구마·유실과를 이용한 혼식 대용식 계몽을 위한 교내 바자를 개최, 양지회 회원, 학부모 일반인 3,000명이 참관했고 대용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사. 하계학교 개설

문교부의 위임을 받아 일본국적 한국 학생 하계학교를 개설, 1973년 8월 10일~18일까지 9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일본 학생들을 공항에서 인수하여 출국까지 치밀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준비, 정열적으로 실천하여 국가가 바라는 조국 소개라는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아. 교련 시범

문교부 주최 교련 시범을 1974년 4월 11일 여고로는 본교, 남고교로는 서울 고등학교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시범을 보여 각계의 격찬을 받았다.

자. 새마을 교육 실적 우수교

1974년 5월 13일에는 지난 해(1973년도) 새마을 교육 실적 우수교로 선발되어 문교부장관 표창장과 상금 50만원을 부상으로 받아 모든 학교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5.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경제 및 기타의 사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치 못한 사람에게 방송과 통신 등에 의한 교육 방법으로 중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기존시설을 이용한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국가 교육시책의 하나로 1974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교육대상으로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고등학교 미 진학자 및 성인 교육의 미수자로 하였다.

우선 1974년도에는 서울에 남자 5개교와 여자 3개교가 개교되고 197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41개교로 늘어났다.

본교에서는 1974년 2월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를 인가받아 1974년 3월 23일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개교되었다. 학생 449명 7개 반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등교 수업은 매월 1, 3주 일요일이다.

6. 제7대 권청자 교장 취임

1974년 7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북구청장에서 본교로 발령을 받은 권청자 제7대 교장 취임식이 주월영 교장의 이임식이 있는 다음 날인 7월 3일에 거행되었다.

권 교장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37년간 줄곧 교육에 몸을 바쳐온 분인데 대전여고·동대문여고·무학여고 교장직을 역임한 바 있고, 한 때는 문교부 장학관으로 있으면서 초·중등교육을 통하여 여성교육에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한편, 생애교육을 강조하는 그의 교육 신념을 몸소 실천하듯 자기개발과 전문

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육학과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저서로는 ‘중학가정’·‘중학예법’ 등이 있고 교육 발전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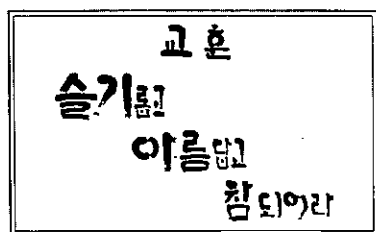
권 교장은 전문지식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활달한 성격과 용의주도한 성품을 가진 분으로 수도여고로서는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7. 교훈

진·선·미를 지향 - 교훈의 개정

“참되고, 슬기롭고, 서로 돕자”는 교훈을 “슬기롭고, 아름답고, 참되어라”로 개정하였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의 동기는 전 교훈이 3자 4자 4자로 되어 음조(音調)가 고르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고, 인류가 이상적 가치로서 진·선·미를 추구하여 왔는데 본교 전 교훈은 진과 선만을 가르치고 미를 들고 있지 않았다. 미에 대한 배려로 새 교훈에는 아름답고를 넣어 교훈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수도의 교훈은 모든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교내 교훈에 따르는 수도교육의 목표는 곧 인류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하겠다.

첫째로 ‘슬기롭고’는 지(知) 내지 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 이성은 사람이 사람되게 한 원동력이다. 오늘의 눈부신 문명이 바로 인간의 예지에서 나온 것이다. 교훈은 1차적으로 학생에게 학문 탐구에 진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름답고’는 미를 뜻하는데, 잘 갖추어진 교양, 예절 바른 행동, 순화된 정서, 건강한 신체, 세련된 외모,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인품의 미를 뜻한다.

‘참되어라’는 진과 미의 뜻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성(聖)의 가치와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성실·근면·협동의 마음가짐, 나아가서는 ‘사랑’, ‘인(仁)’·

‘자비(慈悲)’를 의미한다(권 교장 훈화에서).

이 교훈 개정은 권 교장이 이상적이고 완전한 인간을 기르려는 염원으로서 수도 교육계획의 기저가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실력 배양, 체육 활동, 예절 지도, 새마을 교육 활동 등에 뚜렷이 구현되고 있다.

1975학년도는 권 교장 취임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 학기로 학교교육 운영계획에 삼대 노력 중점을 설정하여 수도 교육의 앞찬 전진을 도모하려 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학력신장
- ② 덕성함양
- ③ 체위향상

학교 교육목표는 1973년도에 설정한 “성실·근면한 품성과 자주·자립정신을 기르고 꾸준한 노력으로 전진발전하며 협동봉사하는 여성을 육성한다”는 것을 계승했으나 중점사업은 1975학년도의 장학방침을 그대로 본교 교육 중점사업으로 설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① 국적있는 교육 신장
- ② 교육유신의 심화
- ③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
- ④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 ⑤ 건강체육 교육의 진흥

참고로 본교 교육 계획에 기저가 된 1975학년도 장학목표와 교육감 행정 지표를 적어둔다.

장학목표

· 국민 교육 헌장 이념 아래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다운 한국인을 육성한다.

교육감 행정 지표

· 국민 교육 헌장이념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풍토 조성

- ① 존경 받는 교사의 자세
- ② 교장 중심의 학교운영
- ③ 교육 행정의 합리화

8. 중요 교육활동

- 수도교육의 내실을 다짐 -

권 교장은 취임한지 2년 여에 걸쳐 자신의 교육이념과 국가의 교육정책을 잘 조화하여 수도교육의 내용을 차분히 다져갔는데, 그 중요 교육활동과 결과를 큰 항목별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 운영 충실

- ① 수업시간 확보
- ②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수업 실시(연 20회 이상)
- ③ 교재 교구의 확충
- ④ 자학자습 권장

도서관을 비롯 시청각실 그리고 부족할 때는 교실을 지정, 자리 부족이 없도록 배려했고 특히 질서 유지와 지도 편익을 위하여 각자 자리에 기명하였고 연중 자습지도에 힘을 기울였다.

- ⑤ 학부모의 욕구 충족 : 대학입시 예비고사 성적과 대입 본고사 성적을 크게 향상시켰다.

나. 생활관

- ① 생활관 및 예법실 운영(연중)

- ② 새 가치관 정립을 위한 방송 및 훈화교육 실시

다. 환경개선

- ① 도복도(道複道) 설치
- ② 화단 조성 및 보완
- ③ 일제 청소 실시:청소 습관을 몸에 베게 하고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 ④ 환경심사 실시와 표창(연 2회)
- ⑤ 신발장과 화장실 증설

(3-9 각종 시설사업 참조)

라. 새마을 교육의 강력한 추진

(3-10 새마을 교육 실적 참조)

마. 국가안보

(3-11 영광의 수도여고 학도호국단 참조)

바. 학교경영의 창의성 발휘

- ① 각종 협의회 운영을 통한 민주적 학원 경영
- ② 창의력 계발 교사제안제 채택과 우수안 표창
- ③ 3학년 취업반 편성과 특별 취업 지도
- ④ 장학생 확충 계획 수립과 실시
- ⑤ 교사 복지시설 마련과 건강 관리 철저, 휴게실 마련, 정구장 운영, 무결근 교사 표창제 실시

사. 보건 체육 교육의 강화와 특기 신장

(3-12 체육부 활동 참조)

아. 취미와 특기 계발을 위한 특활교육

- ① 특별 활동부서 확대(40개 부서)
- ② 백합제 개최(3-13 성황리에 개최된 4회 백합제 참조)
- ③ 학교신문 및 교지 발간(3-14 문예반 활동 참조)

- ④ 각종 대회 개최
- ⑤ 각종 대회 행사에 참가

자. 연구학교

- ① 서울특별시 교육연구회 '육상지도시범학교'(1975. 3. 1~1976. 3. 1)
- ② 문교부 지정 인구 교육문제 연구시범학교(1976. 3. 12)
- ③ 남부지역 장학협력회 간사학교(1974~1975)

9. 각종 시설사업

권 교장은 자상하며 용의주도한 분으로 부임하자 학교의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에 부족한 점이나 불편함이 없는가를 살핀 후 각종 시설사업을 펼쳤다.

시설 사업 내역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시설사업, 실시 내역 —

기간, 1974. 7~1976. 10

사 업 명	준공년월일	시 설 개 요
화장실 1동 신축	1975. 9. 16	기존 화장실 1동을 철거하고 수세식으로 신축함 우물 펌프 공사 건평 11.5평 예산액 1,991,000원
도복도 신설	1975. 9. 16	본관과 후관 및 서별관을 연결 길이 94m, 폭 2.4m 예산액 1,185,000원
창고 신축	1975. 9. 16	노후 사택을 철거하고 창고 신축 건평 8.7평 예산액 774,000원
비상계단 설치	1975. 12. 31	서별관 후관 2개소 설치 예산액 700,000원

전기용량 증설 및 보수	1975. 12. 31	전기용량을 18kW에서 38kW로 20kW 증설 2상배선은 3상배선으로 증설 보수
학생 신발장 제조	1976. 4. 1 1976. 2. 28	서별관 12학급분, 후관 12학급분 제조 예산액 1,400,000원
본관 전면 정원 조성	1976. 4. 5	자매부대인 청룡부대로부터 자연석 4차를 지원받아 조성
상아당 암막 장치	1976. 5. 20	상아당 암막시설 1, 2, 3층분 완성 예산액 1,120,000원
상아당 및 서별관 지붕 도장	1976. 8. 2	상아당 지붕 및 창틀과 서별관 지붕 도장 예산액 950,000원
화재 탐지기 설치	1976. 9. 6	본관 각층 5회로, 서별관 3회로 도합 8회 로 설치 예산액 937,000원
사격장 시설	1976. 9. 7	후관 옥상에 사격장 설치 사대 5대와 철책 시설 예산액 627,000원

10. 새마을 교육 실적

가. 새마을 교육 방침

성실 근면한 품성과 자주 자립 정신을 기르고 꾸준한 노력으로 발전하며 협동 봉사하는 여성을 육성하기(본교 새마을 교육 목표)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새마을 교육 방침을 세웠다.

- ① 교육과정 전 영역에 반영 지도
- ② 자원 절약 및 식생활 개선 교육 강화
- ③ 새마을 가꾸기 실천
- ④ 성인 교육 확충
- ⑤ 생활의 과학화
- ⑥ 봉사 활동 전개
- ⑦ 원호 위문 활동 전개 및 이웃과 학우돕기운동 전개

나. 본교 새마을 교육 중요 실적

(1) 민족 중흥관 설치 확장

도자기류 87점 · 화폐류 105점 · 의상류 16점 · 장신용품 33점, 기타 75점을 전시하였고 멀공코너('75) · 역사코너('76) · 현재 및 미래관('76) 등을 설치하여 민족주체의식과 애국사상, 반공의식 등을 고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2) 위문 활동

- ① 경주 수학 여행시('76. 5. 19~22) 학생들의 여비를 절약, 3만여 원으로 경주 대자고아원과 민제양로원에 사과 6상자, 라면 10상자를 기증했고 안압지 등 사적지에서 휴지줍기를 하였다.
- ② 남대문경찰서 관할 직업소년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이 학생들에게 교과서 250권('75), 탁구대 1대(4만원-'75), 도서 200권('76), 추석 선물로 라면 10상자('76) 등을 기증하였다.
- ③ 해방모자원을 지원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추석과 설날에 선물을 보내고 있다.
- ④ 해병 제7327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위문편지 쓰기, 연말 부대위문 등을 했고('75), 1976년에는 추석 위문금 10만원을 전달했다.
- ⑤ 불우 이웃돕기성금을 기증(7만원, 서울신문사, '76)하였다.

(3) 근로 봉사 활동

- ① 국군묘지 제초작업, 3회 연인원 1,700명
- ② 교통정리
- ③ 환경 보호 캠페인
- ④ 헌혈 캠페인
- ⑤ 시가지 청소(월 1회)
- ⑥ 미아 보호를 위해 남산공원에서 어린이들 이름표 달아주기
(R.C.Y. 단원 120명 동원, '76. 5. 5)

(4) 소득증대 교육

물자 절약 계몽을 하고 폐휴지 빈병 등을 월 1회 이상 수집 매각하여 자활학교 운영에 보태었다.

(5) 감자 혼식 및 토끼·양고기 식용화를 위한 지도

교원 자체 연수('76. 9. 2)를 거쳐 가정과 요리실습을 통하여 익혔고, 어머니교실 때('76. 9. 29)도 전달 강습을 했다.

(6) 새마을 어머니교실 운영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6).

월일	요일	시간	어머니교실 수강내용	강사 담당자	개최장소
3. 12	금	11:00 ~13:15	1. 어머니교실 개강 2. '가정 경제와 소비절약'	학교장 인사 서울시 부녀과 강사, 김근화	시청각실 참석자 90명
3. 15	월	11:00 ~13:00	1. 도시 새마을운동 2. 어머니와 안보	김도완 서울시 부녀과 문평래	종로예식장 43명
4. 7	수	14:00 ~16:30	1. 식량 안보 순회 강연 2. 어머니의 자녀교육 지도	용산구청 식량개발 촉진회 송전대 초빙 강연 안병옥 교수	시청각실 76명
5. 12	수	14:00 ~16:40	지역사회 생산공장 견학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견학 영화 상영 미용 강좌	태평양강당 120명
6. 9	목	14:30 ~16:00	새마을운동과 정신혁명	단국대 학생처장 김유혁 교수	시청각실 61명
7. 8	목	10:00 ~12:30	하절기 가정 관리	새마을연구원 강사 : 허재원	시청각실 31명
9. 29	수	14:00	현미식과 가정관리	강사 : 이인구	시청각실 개최 예정

11. 영광의 수도여고 학도호국단

가. 발단식

1975년 6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학도호국단 설치령'에 의하여 6월 30일에 수도여고 학도호국단 발단식이 교정에서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호국단의 조직은 교장 선생을 단장으로 하고, 교감 선생 및 각부 주임 선생을 상임지도위원으로, 각 선생들을 지도위원으로 하고, 장혜영(교 3) 학생 연대장 밑에 3개 대대, 12개 중대, 36개 소대(학급이 1소대)로 편성되었다. 특별활동 부서도 별도로 두었다.

이번 학도호국단의 조직으로 1960년 5월에 조직 1975년 6월 29일까지 존속되었던 학생회는 해체되고 학생회의 모든 기능도 학도호국단에 흡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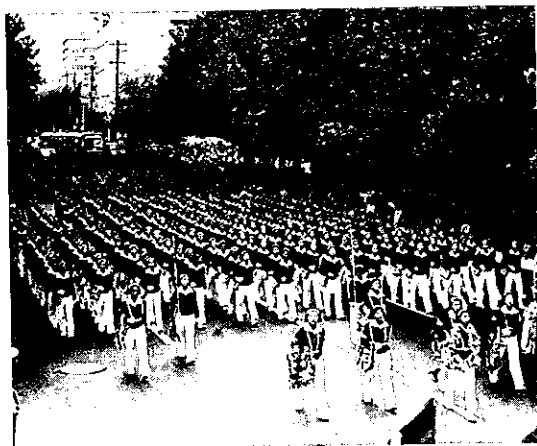
1949년 3월에 대통령령에 의하여 창설되었던 학도호국단은 이듬해인 6·25사변 발단시에는 여러 전투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 주었고 조국수호의 방패가 된 전통이 있다. 15년 만에 다시 발단을 보게 된 것은 1975년 3월 이후 일어난 월남 크메르의 항복과 인도차이나의 공산화에 따른 공산주의 위협에 전국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안보관념을 강화하고 또 이들을 전력화하여 국가방위력을 증대시켜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 있었다. 학도호국단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앞으로 학도호국단은 학교의 학풍을 쇄신하고 호국정신을 배양하며 배우면서 지키는 호국학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나. 학도호국단 전국 대표로

- 제2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 참가 -

1975년 10월 1일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된 건국 2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본교 2학년 450명이 전국 여고 학도호국단 대표로 참가하였다.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총력안보란 기치아래 나라에 충성하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이날 사열대에는 본교 권청자 교장 선생을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 및 해외동포, 초청 외국귀빈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으며 제병지



창단 1주년 기념 행사(1976. 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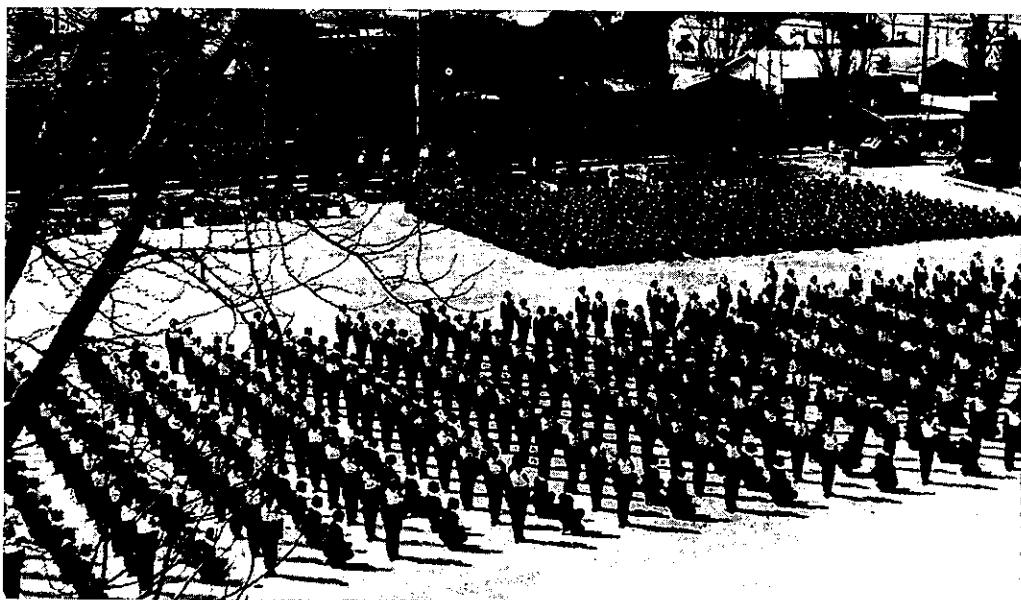
휘관인 조문환 육군 중장의 지휘 하에 본교 학도호국단은 열병과 분열을 했다. 특히 이날 본교 학도호국단은 창단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국군에 못지않은 열정에 넘치는 분열을 하여 참석한 많은 내외 귀빈의 절찬을 받았으며 이 소식은 외신을 타고 보도된 바 있다.

이날 시가행진에서도 백합의 내실 외강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본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교련과 선생님들이 제병지휘관의 공로패, 국방부장관의 감사패, 문공위원장의 금일봉, 문교부장관의 표창 등을 받아 백합의 뜻을 상으로 풍성하게 해주었다.

다. 교련 우수교

1976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교련교육 우수교로 선정되어 교육감상을 받았다.

그 동안 수도 여고생들의 교련교육 성과가 높이 평가된 결과이었다.



교련 시범 광경(1975)

12. 체육부 활동

- 신은선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 수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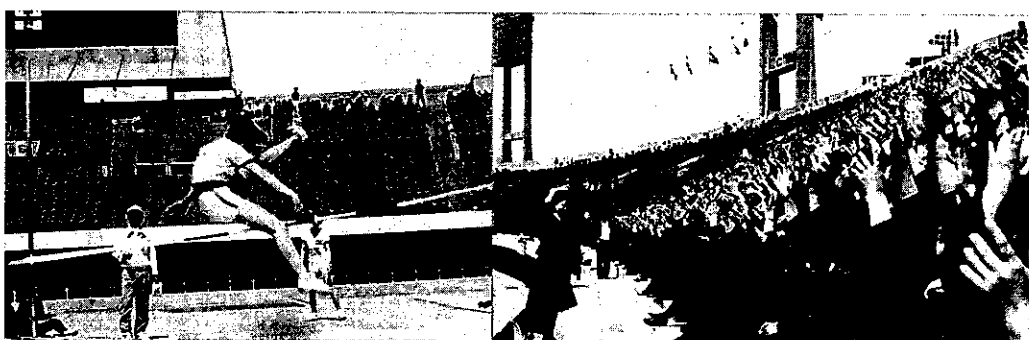
가. 체육특기자 모집

과거에도 체육 활동으로 명성을 많이 떨치고, 이어서 권청자 교장이 부임한 다음 해인 1975년 새학기부터 수도 체육의 재건을 위하여 체육특기자를 모집하였는데 육상에 신은선(중거리, 성산여중)·김혜순(장애물경기, 성산여중)·김형숙(단거리, 상도여중)·수영에 곽미희·이연숙이었다.

그외에 소질이 있는 신영애(높이뛰기)·박미경(투포환)·김명자(중거리)·김정옥(단거리)·김지숙(원반던지기)을 뽑아 2, 3학년생들과 함께 연습에 들어갔다.

1976년에도 체육특기자로 이정호(단거리)·조재환(투포환)·이영식(투포환)·이내삼(단거리)·김수옥(단거리)·김성숙(단거리, 높이뛰기)·박금님(중거리) 등을 뽑았다.

1975년도 본교에서 주관한 8대 공립여자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서 3위 입상을 했고 1976년도에도 역시 3위를 확보하여 수도 체육 재건의 발돋움을 하였다.



서울시 공립여고 체육대회(1975)

나. 신은선 높이뛰기 신기록 수립

특기할 것은 중거리 특기자로 입학('75)한 신은선 양이 이은영 선생의 특별지도로 1975년 8월 30일 제24회 서울학도체육대회 높이뛰기 부문에서 153cm를 뛰어 1위를 하더니 피나는 동계훈련을 한 후 1976년도 시즌오픈 육상경기 기록대회겸 필립핀 오픈 육상경기대회 파견 선발대회에서 당당 160cm를 뛰어 1위를 하여 한국 높이뛰기 대표선수로 부상하였다.

그뿐 아니라 1976년 6월 21일에 거행된 제5회 전국 종별 육상경기선수권대

회에서 종전 한국 신기록인 1m 66cm를 깨고 1m 67cm를 뚫으면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신 양의 끈질긴 노력의 힘도 크지만 지도교사 이은영 선생의 탁월하고 성의있는 지도, 학교장의 배려에도 크게 힘을 입은 것이다.

일약 고 2년생으로 신기록을 수립하여 국가대표선수가 된 신은선 양은 1976년 1월 1일에서 10일까지 개최되었던 싱가포르 독립기념 오픈 육상경기대회(8개국 참가)에 참가하여 동상을 획득했다.

신 양의 싱가포르 파견에는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었는데 전 수도 가족의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다. 수영 부문에도 우승

1975년 5월 16일 서울시 초·중·고·대 남녀별 수영대회 및 전국체전 예선대회에서 광미희 양이 400m, 800m에서 우승을 했고 이연숙 양은 평영 100m, 200m에서 3등을 차지했다.

1976년에는 위의 광·이 양은 전국체전 서울예선에서 뽐혀 1976년 10월 12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56회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로 출전하였다.

13. 성황리에 개최된 4회 백합제

- 학교 행사 -

연중 행사로 가장 큰 관심거리인 백합제가 이루어진 역사는 3년 전이다. 본교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내빈과 타교생 그리고 많은 학부형이 참석하는 이 행사는 매년 높은 수준으로 열렸다. 본교생의 정성과 배움의 결실인 이 행사는 10개 부문에 걸쳐 다채롭게 벌어진다. 불우이웃을 돕자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이날은 전교생의 축제일이기도 하다.

특히 소품과 식품 바자에서 얻는 이익금은 방위성금에, 나머지는 불우이웃돕

기에 사용된다(제4회-10월 23일 개최). 1975년에 폐막된 3회 백합제를 더듬어 본다.

소품바자

가정과 주판으로 평소에 익힌 솜씨로 전교생이 1인 1작품 이상, 주로 아동복 레이스뜨기·버갯잇·책상보·스킬·자수·장갑 등이 출품되어 학급 단위로 판매되었다. 1974년도에 비해 작품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자신의 작품을 팔지 않으려는 일부 학생들이 가격을 비싸게 한 관계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러므로 1976년의 작품과 기술은 예년에 볼 수 없을 만큼 향상했고 값이 높은만큼 질의 고급화를 학생들에게 계몽했다는 흐뭇한 소식이다.

식품바자

분수 주변을 중심으로 조리실 앞에서 벌어진 식품바자는 1, 2학년 조리반 학생들의 훌륭한 솜씨로 시종 손님이 줄을 지었다. 떡볶이와 커피 외의 판매품으로 옥수수차·청국장·조청·버섯 등은 어머니들의 시선을 끌었고 인기가 대단했다.

꽃꽂이전

서예전과 함께 체육관에서 있었던 꽃꽂이전은 모두 31명의 작품으로 평소에 익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고아한 품격을 자랑했으나 작품이 모두 무제였다는 아쉬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활발한 꽃꽂이전이 펼쳐지리라 믿는다.



꽃꽂이전(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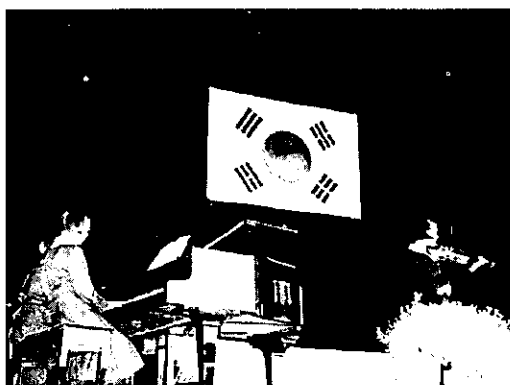
서예전(1976)

서예전

특별활동 시간 외에도 이병호 선생을 초빙하여 토요일·일요일의 여가를 이용 틈틈이 연습한 서예반의 솜씨는 고등학생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았다는 평을 받았고 서체가 모두 획일하여 다채롭지 못한 점을 시정하여 지난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작품전이 기대된다.

음악·무용제

방과 후와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 연습해온 음악제와 무용제가 상아당에서 열렸다. 제1부 음악제는 6곡의 합창곡 이외에 피아노 독주·플루트 독주·바이올린 독주·소프라노 독창·5중창 등의 다채로운 내용이 발표되었다. 또한 제2부 무용제는 무용반원의 적은 인원으로 짜였는데 선생님의 지도와 학생들의 열의 학부모님의 관심이 잘 어울려 군밤타령·호수·구름의 독무와 화관무로 백합제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단지 음악제와 무용제를 통해 아쉬웠던 점은 상아당의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다는 점과 조명장치가 없었고 무대시설 또한 미비했던 것이다.



음악제(1976)



무용제(1976)

시화전

지성과 낭만의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 전원적인 운치를 띤 돌벤취 주위에서 이젤과 나무들을 이용하여 전시되었다. 문예반 45명에 의해 70여 작품이 전시되어 많은 학부모님과 타교생들의 관심 속에서 진지한 작품 토론이 오고 갔으며 시화전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작품을 토론하는 학생들도 있어 본교 문예반의 작품 의욕을 새롭게 했다. 이번 시화전은 예년에 비해 자연적인 서정이 약간 결여되었지만 세련된 시어와 지적인 표현 등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평을 들었다.

방송제

이숙경 외 12명의 방송반원의 열성과 MBC PD 고무송 님 MBC 효과 음악 실 조문형 님 등의 도움으로 제2회 방송제가 상아당에서 열렸다. '수도 뉴스'와 녹음 구성인 '진학의 좁은 문' 등은 재치있게 방송되었으나 '홀러간 노래'와 같은 순서는 보다 자신있고 능숙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므로 더욱 신중을 기했으면 나아지리라는 방청객의 의견도 있었다.

미술전

미술과 주관으로 대상에 조선애 외 22명, 수채화에 노영란 외 14명, 유화에 김랑 외 18명, 판화에 박충은 외 22명, 구성에 정혜선 외 22명, 기타 6명이 1작품 이상 출품한 미술전은 맹명옥 선생님의 지도로 주로 미술반 학생들이 위주가 되었으며 그외 희망자의 작품 중에서 뽑은 것이 전시되었다.

사진전

1, 2학년 사진반원 작품이 체육관에 전시되었고 전시된 작품들은 평소에 좋은 이미지를 포착하여 찍어둔 것이었고 김종훈 선생님의 지도로 사진기술이 세련되었다는 호평이었다.

14. 교지 백합 발행

- 문예반 활동 -

가. 교지 〈百合〉 제15호 발간

1968년 12월 30일 백합 제15호가 나왔다. 화보 8면, 228페이지로 엮은 것이다. 중·고 학생들의 글이 모두 실렸는데 시가 40편, 수필이 37편이나 실려 학생들의 문예활동 의욕을 크게 격려했다.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다. 정인진·엄죽선·안경옥·이정숙·김정남·서정원·여숙희.

나. 교지 〈百合〉 속간호 16호 발행

1972년 1월 15일 수도여자중·고등학교 이름으로 백합 속간호(16호)가 발행되었다.

화보 6면, 총 226페이지 국판이었다. 교사 논단이 4편, 교사 수필이 7편으로 선생님들의 투고가 많았던 것이 특색이었다.

편집위원은 이성림(교 3) · 이옥경(교 2) · 강경자(교 2) · 유명례(교 1) · 김숙자(교 1)이었다.

다. '74~'75년도의 문예부 활동

그동안 꾸준히 정진하여 온 본교 문예반은 '백합'지의 속간, 각종 문예경연대회의 입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74년 12월 10일 '백합' 제38호(국배판 16면)를 유청자 선생님의 주간으로 발행했다.

1974년도 숙명여대 주최 청파문예경연대회 시부 최우수상을 3학년 이양숙 양이 차지했으며,

1975년 7월 30일 '백합' 제39호(신문 크기 8면)를 안재식 · 강석호 선생님의 주관으로 펴내었다.

1975년도 숙명여대 주최 청파문예경연대회 시부 최우수상으로 본교 1학년 김미자양 수상. 동 시부 장려상에 본교 1학년 이동희 양 입상과 산문부 장려상에 3학년 박미숙 양 입상으로 최다 입상학교가 됐다.

1975년 12월 31일 '백합' 제40호(신문 크기 8면)를 안재식 · 강석호 선생 주간으로 발행했다.

1975년 12월 5일 경희대학교 주최 전국 고교생 문예작품 현상모집 소설 부문에 본교 3학년 박미숙 양의 '세사토'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수도 문예반원들의 실력을 과시하였는데, 이때 심사한 분은 소설가 황순원 씨였는데 박 양의 경희대 진학을 권하기까지 했다. 입시면제라든가 장학금의 특혜가 있었고 박 양의 재질을 인정했기 때문이다.